

## ■ 이달의 포커스

### [ 방송개혁위는 제대로 가닥을 잡았는가? ]

방송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방송개혁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월 26일에 있을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항간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개혁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방송개혁을 논하면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무엇이 공공이고 무엇이 공익인가 하는 개념정리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해 감상적이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 못지 않게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질이 마치 광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상업성이 반드시 공공성과 배치되는가, 또한 상업주의는 반드시 나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상업주의 아닌 것이 있을까?

순수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가치가 메겨지는 현실에서 상업주의를 배제해야만 공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방송의 공공성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편성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사항일 뿐 광고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방송의 시청률 경쟁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 경쟁이 광고 때문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방송이 시청률 경쟁을 안 하도록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방송은 당연히 시청률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경쟁이 없는 부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BBC는 시청률조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률 조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기왕 개혁을 한다고 하니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타파하여 신선하고 진정한 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방송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생애 마지막 일로 알고 임하겠다”고 밝힌 강원룡 방송개혁

위원장의 지적처럼 방송개혁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방송의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와 기술의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며 거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의 가닥을 제대로 잡는 일이다.